

# 황의조 “레바논전 승리가 중요...꼭 골 넣겠다”



황의조

오늘 수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경기  
“침대축구 극복하려면 더 많이 움직이고 득점으로 마무리”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기회가 생겼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벤투호의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29·보르도)가 이라크와의 부진을 씻어내고 레바논전 필승을 다짐했다.

황의조는 6일 유튜브로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레바논전을 앞둔 각오에 대해 “공격수들은 물론 코칭스태프까지 어떻게 해야 기회를 만들고, 슈팅까지 이어갈지 연구하고 있다”라며 “기회가 많지 않더라도 반드시 골을 넣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7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2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지난 2일 이라크와 1차전에서 15차례나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0-0 무승부에 그친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예선전 초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라크와 1차전에서 득점에 실패한 황의조에게 거는 팬들의 기대는 더 커지고 있다.

황의조는 “쉬는 시간이 적었지만 체력에 문제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라며 “매번 득점할 수는 없지만 기회를 살리고 골을 넣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차 예선에서 상대했던 레바논의 장단점에 대해선 “상대가 선수를 많이 내려서 수비하는 팀이지만 역습 능력이 있다. 상대 공격수들도 기술이 있어서 대비해야 한다”라며 “실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공격수들이 공간을 만들고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나도 월드컵 최종예선은 처음이다. 기대도 크지만 부담도 있다”라며 “그런 점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 부담도 있지만 최대한 잘 이겨내서 결과만 바라보고 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바논의 ‘침대축구’ 가능성을 묻자 “모두가 느낄 것이다.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기회를 얻었을 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깨달았다”라며 “큰 점수차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생겼을 때 1-2골을 넣고 이겨야 한다. 승점 3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는 손흥민(29·토트넘)이 이라크가 ‘침대축구’를 구사했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이다. 골키퍼, 프리킥, 스로인 등 모든 부분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느낌이였다”라며 “어찌 됐든 그런 것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KIA, 투타 엇박자...총체적 난국

## T 타이거즈 전망대

9월 한 달 1승 1무 4패

평균자책점 5.37

타율 0.187 압도적 꼴찌

KT·키움·NC와 7연전

KIA 타이거즈가 투타의 엇박자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KIA는 9월 한 달 6경기에서 1승 1무 4패를 기록했다. 결과는 물론 내용도 좋지 못했다.

KIA 투수들의 9월 평균자책점은 5.37까지 치솟았다. 최근 3경기에서는 26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이닝 당 평균 1.54명의 주자를 내보내는 등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타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최원준과 황대인이 각각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인상적인 홈런은 기록했지만, 9월 타율은 0.187로 압도적인 꼴찌다.

지난 1일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미란다의 노히트 노런 기록을 만들어 줄 뻔했다. 9회 2사에서 김선빈이 이 경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안타를 만들면서 겨우 기록의 희생을 면했다.

경기 당 평균 5.37점을 내준 마운드와 경기 당 평균 2.33점을 만든 타선, 당연히 9월 성적이 좋지 않다.

## ■KBO중간순위 (6일 현재)

| 순위 | 팀명  | 경기  | 승  | 무 | 패  | 게임차  |
|----|-----|-----|----|---|----|------|
| 1  | KT  | 98  | 59 | 1 | 38 | 0.0  |
| 2  | LG  | 95  | 53 | 2 | 40 | 4.0  |
| 3  | 삼성  | 102 | 56 | 3 | 43 | 4.0  |
| 4  | 키움  | 102 | 52 | 1 | 49 | 9.0  |
| 5  | NC  | 95  | 46 | 4 | 45 | 10.0 |
| 6  | SSG | 101 | 49 | 4 | 48 | 10.0 |
| 7  | 두산  | 96  | 44 | 2 | 50 | 13.5 |
| 8  | 롯데  | 97  | 43 | 3 | 51 | 14.5 |
| 9  | KIA | 94  | 37 | 5 | 52 | 18.0 |
| 10 | 한화  | 102 | 37 | 5 | 60 | 22.0 |

9월 성적만 나쁜 것은 아니다.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은 5.33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다. 선발진은 5.31로 10위, 불펜진은 5.35로 9위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56으로 가장 높다.

KIA의 팀 타율과 출루율은 각각 0.243과 0.335로 전체 9위다. 홈런(41개)·타점(354점)·2루타(122개)·장타율(0.331)·OPS(0.666)는 최하위다.

손발도 맞지 않는다. 투수들의 제구 난조로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야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투수들도 힘들다. 빈타 속 득점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서 투수들의 어깨가 무겁다.

마운드 난조, 방망이 침체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한 묘수가 없다는 점은 가장 큰 고민이다.

사실상 지금 멤버가 KIA의 베스트 전력이다. 퓨처스리그 선수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활용 가능한 범위에서 확장 엔트리들을 모두 채웠다.

4일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새 외국인 선수도 다카하시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플러스 요인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2군 선수단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면서 지친 마운드에 새 활력소가 돼줄 투수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되면 위안이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 방향 없이 흘러온 구단, 손에 권 패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벤치까지. KIA는 힘겨운 9월을 보내고 있다.

새로운 한 주도 힘난하다.

KT, 키움과 원정경기에 이어 주말 안방에서 NC와 대결이 예정돼 있다. 12일 경기가 더블헤더로 치러지면서 7연전이 기다리고 있다.

상대도 까다롭다.

1위 질주 중인 KT를 상대로 한 주를 시작해야 하고, 선발 고민 속 올 시즌 6패로 열세인 NC와는 3경기를 치러야 한다.

후반기 에이스로 자리한 멧덴이 이번 주 두 경기를 소화하는 게 KIA에는 반갑다.

부상에서 복귀한 멧덴은 후반기 4경기나 나와 24이닝을 소화했다. 1일 두산전에서는 KBO리그에서 첫 7이닝까지 채웠다. 멧덴이 등판한 후반기 4경기에서 팀은 3승 1무를 기록했다.

멧덴은 7일 KT 테스파이네를 상대로 팀의 3연패 탈출에 앞장서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캔틀레이 투어 챔피언십 우승 ‘175억 돈다발’ 임성재, 한 시즌 버디 498개 ... PGA 새 역사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사를 새로 썼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끝난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자 2020-2021 시즌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뽑아냈다. 임성재는 이로써 이번 시즌에 498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PGA 투어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0년 스티브 플래시(미국)의 493개. 21년 묵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3라운드까지 493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플래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임성재는 이날 2번 홀(파3)에서 6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일찌감치 새 기록을 수립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도 시즌 최다 버디 1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3년 연속 ‘버디왕’을 차지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에 무려 34차례 대회에 출전했고 128라운드를 돌았다. 2000년에 123라운드를 치렀던 플래시보다 5라운드 더 많다.

임성재는 “(시즌 최다 버디 신기록은) 어제까지 몰랐는데 어제 TV 중계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오늘 한 번 그 기록을 깨보려고 생각했는데, 2번 홀에 버디를 하면서 기록이 깨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도 이 버디 기록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임성재는 곧 시작하는 가을 시리즈에서는 “5차례 가장 출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6일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지는 2021-2022 시즌 가을 시리즈 대회는 이벤트 대회를 빼고 9개다.

임성재의 2021-2022 시즌 첫 대회는 오는 30일 개막하는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이다.

이번 시즌에 우승은 하지 못했어도 마스터스 준우승을 포함해 5번이나 10위 이내에 진입했고, 415만 달러의 공식 상금을 벌어들이며 페덱스컵 랭킹 12위에 오른 임성재는 “기회도 많았는데, 시즌 초반에 우승 기회를 못 살려서 좀 아쉽다”면서 “그래도 투어 챔피언십까지 출전해 올 시즌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한편,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이번 대회 정상에 올라 1500만 달러(약 175억원)의 보너스를 손에 넣었다.

캔틀레이는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69타를 쳐 최종 합계 21언더파로 우승했다. 그가 나올 동안 친 타수는 11언더파 269타.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우승한 캔틀레이는 2020-2021 시즌 PGA 투어 왕좌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온 램(스페인)의 추격을 1타차로 따돌린 캔틀레이는 플레이오프 우승 보너스 1500만 달러를 받았다. /연합뉴스



캔틀레이 ‘1500만달러의 사나이’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가 트로피를 들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최종 합계 21언더파 269타를 기록, 세계랭킹 1위 온 램(스페인)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연합뉴스